

여수시, 박람회장 사후활용 6개안 정부에 건의

- ① 부지 매각 대신 장기임대 병행
- ② 국제마리나항 여수 우선 지원
- ③ 핵심시설 콘텐츠개발 예산지원
- ④ 홍보관→주민자치센터로 전환
- ⑤ 여수프로젝트 기금 조성
- ⑥ 박람회 계승 해양과학관 조성

여수시는 24일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한 정부의 보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사후활용 보완계획에 대해 6건의 건의안을 작성했다. 여수시는 건의안을 내년 1월 개최예정인 정부 사후활용지원 실무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여수시가 제출한 건의서는 ▲세계박람회장 부지에 대한 매각원칙에서 장기임대 병행 ▲전국 6개 지역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만 중 여수엑스포 지역 우선 지원 ▲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3대 핵심시설(BIG-O, EDG, 스카이라이프)

콘텐츠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세계박람회 홍보관을 한려동 주민자치센터로 용도전환 ▲여수프로젝트 기금 조성 ▲박람회 정신계승 사업인 해양과학관 조성 등을 담았다. 앞서 11일 열린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시설·부지 매각방법에 대해 건물·시설은 장기임대, 부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보완계획을 밝혔다. 또 박람회장 운영 재정지원은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규모를 축소 지원하되, 2019년부터 박람회 재단 자체수익으로 운용한다는 중기 재정 운용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박람회 사후활용지원 실무위원회, 2월에는 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위원회

를 열어 보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한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시설·건물 운영방안에 대해 기존 매각방침에서 장기임대 병행 방향으로 선회했고, 크루즈부두 및 카페리선 접안시설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한국철도의 민간 투자유망 분석 시 응답자 87%가 부지 장기임대를 선호한다는 결과에서 나왔듯이 장기임대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9년 자체수익예산에 의한 시설운용을 위해서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순천시 보유 '대한민국 최초' 23건

순천시가 보유한 '대한민국 최초'가 모두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최초와 전라남도 최초, 그리고 최고 규모에 대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 최초는 모두 23건, 전라남도 최초는 9건, 전국 최대 규모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최초로는 '버 조기제 배 모내기 시행과 햅쌀 생산'을 비롯해 '전국 1호 기적의 도서관 설립', '순천만 황새 보호를 위한 전봇대 철거', '순천만 연안습지 전국 최초 탐사협약 등록', '도시 대상 대통령상 2회 연속 수상', '전국 최초 코래일 연계 귀농귀촌 기자여행 상품 출시' 등이다. 또 전라남도 최초는 '친환경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을 시작으로 '농업인 월급제', '시내순환 시티투어 운행',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 '농업용 로봇 꽃 생산 시스템 도입' 등이다. 전국 최대 규모로는 2011년 10월에 개관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가 꼽혔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한전 나주 신사옥 상량식... 내년 8월 준공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최대 이전기관인 한국전력(KEPCO)은 24일 나주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공사 안전을 기원하는 상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공사관계자, 협력회사 임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안부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현판에 담아 최상부 철골에 부착하고 이를 상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 한전 신사옥은 에너지 대표 공기업에 걸맞은 '그린에너지 명품 건물'로 태양광과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대표적인 에너지 저감 빌딩으로 꼽힌다. 특히 업무용 건물 중 국내 최대의 신재생 설비(6750kW)를 설치해 에너지 자급률을 42%까지 끌어 올린 것이 특징이다. 한전은 이와 관련해 에너지관리공단 등으로

부터 최저 에너지 소비건물(135kWh/㎡·년)에 비인중 획득과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 등을 획득한 바 있다. 조환익 사장은 상량식 기념사를 통해 "사옥 이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한전의 새로운 백년대계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빛가람 도시가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역사회의 기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11월 착공한 신사옥은 부지면적 15만㎡, 건물 연면적 9만3222㎡에 지하 2층 지상 31층으로 총 건설비는 2515억원이 투입돼 2014년 8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69.3%로 내년 11월께 빛가람혁신도시로 1425명이 이전해 올 예정이다. /나주=손영희기자 ycsn@

곡성 '황후마마 심청쌀' 출시

곡성군은 대표 브랜드쌀 '황후마마 심청쌀'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23일 곡성문화센터에서 허남석 군수, 유관사회 단체장, 농가대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후마마 심청쌀 출시 기념행사를 열었다. 황후마마 심청쌀은 곡성군 대표 브랜드쌀 육성 계획에 따라 2012년 초부터 유관기관, 농가대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친환경농법 적용과 유기물 함량, 유효규산함량 분석 등의 방식을 도입해 재배됐다. 또한 곡성군은 농가 교육, 재배 기술지도, 수확기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했다. 허남석 군수는 "황후마마 심청쌀은 곡성군 쌀의 대표 얼굴"이라며 "인당수에 빠진 후 황후로 화려하게 탄생한 심청처럼 황후마마 심청쌀이 전국에서 날개 달린 듯 판매되고 사랑 받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다산 초당 가는길 절개지 흉물 '남도 답사 1번지'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 가는 길 절개지가 오랫동안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2008년 산을 헐어 절개지를 만들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급증

면적 6만1000ha 전년보다 2배 늘어 품목도 시금치 등 포함 40개로 증가

전남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정 당국은 잇단 태풍 피해 후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6만1000ha로 지난해(2만9000ha)보다 100% 이상 늘었다. 가입 품목도 지난해까지 35개에서 올해 시설상추, 시설부추, 시금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이 추가로 포함돼 모두 40개로 증가했다. 영암이 9274ha로 가장 많고 나주 8759ha, 해남 7326ha, 강진 4514ha, 고흥 4456ha 등의 순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태풍 '볼라벤'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서 재해보험이 농가소득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험료 670억원 가운데 국비 50%(335억원)을 제외한 지금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이 추가로 포함돼 모두 40개로 증가했다. 영암이 9274ha로 가장 많고 나주 8759ha, 해남 7326ha, 강진 4514ha, 고흥 4456ha 등의 순이다. 재해보험이 농업과 축산, 수산 등으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정부에 재해보험을 통합 운영할 전달기관을 설립해 줄 것을 건의해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전달기관은 내년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전중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태풍피해 당시 재해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지 농업인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올해 가입자가 부쩍 늘었다"며 "2017년부터는 특화품목인 무화과와 유자도 보험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풍 볼라벤이 휩쓸고 간 뒤 전남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5000 농가가 1501억원(농가당 평균 1027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바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마련

내년 2월 10일 시행

광양시가 3개 권역 환승체계 및 도심권 강화를 골자로 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 광양시는 시행에 앞서 23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노선 개편안의 특징은 광양읍권, 중앙동권, 옥곡면권 등 3개 권역의 연계 환승체계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 다. 또 옥곡면을 중심축으로 동부권(농촌지역)은 옥곡정류장을 중심으로 환승체계를 구축했으며 광양읍~옥곡면~중마동 구간 순환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중마동 시내버스 노선과 광영~중마~금호~태인을 운행하는 88번 노선을 개선했으며, 과다 중복 운행노선인 광양읍~중마동, 광양읍~옥곡면, 중마(옥곡)~금호~태인을 운행하는 노선의 운행 횟수를 조정했다. 이용률이 저조한 1개노선(27-2번, 옥곡~매동)은 폐지하고, 7개노선(3번, 13번, 21-4번, 27-3번, 32번, 90번, 999번)은 다른 노선에 편입했다. 15개노선(2번, 3번, 10번, 17번, 18번, 20번, 21-2번, 22번, 23번, 25-1번, 27번, 27-1번, 34번, 35-1번, 89번)은 감회 운행하고 2개노선(11번, 88번)은 종점지 및 경유지를 변경했다. 광양시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확정된 후 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4079@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정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